

임진왜란기 이영남 장군의 수군 활동

김 낙 진 *

-
- I. 머리말
 - II. 조선수군의 방어체계와 전력
 - III. 이영남 장군의 청병과 연합함대의 결성
 - IV. 초기해전의 승리와 이영남 장군
 - V. 가리포침사 이영남과 노량해전의 승리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이영남 장군은 원균의 막하에서부터 이순신 장군의 조방장으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까지 임진왜란기 해전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 육전에서는 제대로 저항한번 하지 못하고 1달 만에 서울을 점령당한 상태에서 해전에서는 오히려 승리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여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키자 경상좌수사 박홍은 도망갔었고, 이영남 장군의 상관이었던 경상우수사 원균은 왜군의 기세를 보고 자신의 전함과 무기를 스스로 침몰시킨 뒤 육지로 달아나려고 하였다. 이 때 이영남 장군은 원균을 설득하여 파국을 막았으며, 이순신에게 청병하여 위기를 벗어나자고 하였다. 이영남은 여러 차례에 걸친 청병을 통해 이순신을 설득하여 연합함대를 결성한 뒤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인 옥포해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다. 옥포해전은 연합함대 결성 후 최초의 승리로 이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분수령이 된 결정적인 싸움이였다. 그 뒤 이영남은 한산대첩과 부산포해전 등 계속해서 이순신이 이끄는 연합함대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당시 가리포침사에 임명되어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뒤 이순신과 함께 적의 탄환에 맞아 순국하게 되었다. 이영남은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이순신의 업적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가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숨은 주역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영남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¹⁾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 전쟁기념관 연구원

1) 이영남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래의 것이 대표적이다.

최석남, 『忠將李英男事蹟記』, 가림출판사, 1967.

있겠지만 우선 이순신의 업적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순신에 집중적인 연구성과들이 축적된 반면에 그를 도와 활약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또한 이순신은 난중일기 등을 남겨 그와 관련된 사료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나 이영남의 경우는 단편적인 기록에 의지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가 이영남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영남 장군의 수군활동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 수군의 편제와 무기체계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당시 해안 방어체계와 수군의 조직, 그리고 수군이 사용하던 군선과 무기체계 등을 알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수영 소속으로 연합함대에 참여하여 이영남 장군이 치룬 주요 해전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리포침사로 부임한 이영남 장군과 임진왜란의 종전을 가져오게 만든 노량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조선수군의 방어체계와 전력

임진왜란기 조선수군의 활약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당시의 국방체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의 지방군제는 중앙군처럼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만들어졌다.

지방에는 처음 남방에 영진군이 있고, 북방에는 익군이 있어 이원적인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북방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중익(中翼), 좌익(左翼), 우익(右翼)으로 나누어 편성·방어하는 체제를 익군체제라고 한다. 그러다 세조 3년에 이르러 진관체제로 바뀌며 지방군제의 기본이 완성되었다. 진관체제에 의하면 지방에는 도에 병영과 수영을 각기 하나씩 두어서 육군과 해군을 통할케 하였고, 그 밑에 여러 진(鎭)을 두었다. 단 함경도와 경상도에는 여진과 왜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영과 수영이 둘씩 두어졌고, 전라도에는 수영이 둘 설치되었다. 이 진관체제는 모든 지방군을 정병으로 일원화하여 균일적인 국방체제를 갖추게 하였다.

국토 전체를 독립된 통수권과 작전권을 갖게 하는 진관단위와 그 밑에 무수한 방어거점을 둠으로써 전국을 군사지대화하는 조직체로 묶었다. 그리고 이 진관체제는 각 진(鎭)을 중심으로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각각의 군사기지는 관할 지역을 책임지고 사수한다는 지역방위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왜군이 바다로 침입해 올 때는 수군이 나가 싸우고, 육군이 이를 지원하며, 왜군이 육지로 상륙하게 되면 육군이 나가 싸우고, 수군이 지원하는 일종의 분군제도(分軍制度)였다.

조선은 육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진관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군(水軍)은 진관체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내륙의 육군과는 차이가 있었다. 행정단위로서의 道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해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이영환, 『李英男將軍 傳記』, 진천문화원, 1984.

이종원, 『侵牟된 正論-壬亂事蹟을 歪曲捏造한 陽城 李英男 行狀』, 全義李氏花樹會, 1993.

각 도의 수군 최고지휘관은 수군절도사였는데, 강원·황해·평안도 및 함경도에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관찰사나 병사가 겸하는 1명으로부터 3명의 수군절도사가 있었으며, 경기·충청도에는 1명의 전임수사와 관찰사가 겸임하는 1명의 겸수사가 있었고,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각각 2명의 전임수사와 1명의 겸수사가 있었다. 수사 예하에는 巨鎭에 배치된 침절제사와 연해안의 작은 포구에 배치된 만호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다. 인근 진에서 군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상부의 허락을 받은 뒤에야 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성종 이후에 간헐적으로 계속된 북방 야인과 남방 왜구의 침입 경로가 일정하게 되풀이되자 그들의 침입로 상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적을 막을 수 있다는 이른바 제승방략 체제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는 각 진관의 독자성을 중시하여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체제와는 달리 유사시에 각 읍 수령들이 자신의 소속 군사를 모두 이끌고 본진을 떠나 지정된 방어진역으로 이동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후방지역에 군사가 없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막을 방도가 없는 일종의 총력방어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제승방략 체제는 야인의 침구와 같은 소규모의 국지전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같은 대규모의 전면전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은 진관체제로의 복구를 주장하였다.²⁾ 남방에서의 제승방략의 취약점은 첫째로 적이 대규모로 침입해 올 경우 제 일선에 군사를 집중 배치하기 때문에, 내륙의 방어거점은 텅 비게 되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둘째는 전투가 벌어져 군사들이 집결해도 중앙에서 임명한 경장(京將)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지휘할 사람이 없었다. 셋째는 경장이 중앙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지휘관인 병사(兵使)나 수사(水使)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지휘체계가 중첩되어 작전의 일원화를 기할 수 없었다. 넷째는 경장(京將)으로 임명된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임지로 떠나게 되므로 아군의 전비 상태나 적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승리할 수 있는 방략을 찾기가 힘들었다.

고려말 왜구의 침구가 극성을 부리고부터 조선초까지 남해안 일대를 자주 침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수군의 발전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조선 수군은 왜구에 대한 대비책에서 출발하여 세종과 성종 때에 이르면 상당한 규모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을 도와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승리를 이끈 이영남 장군의 활약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 수군의 조직과 규모, 그리고 전투의 핵심인 함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나는 밤낮으로 왜군이 침략해 올 것이 걱정되어 무릇 국가방위책에 대해 한시라도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라좌수사로 정읍현감 이순신을 옮겨 앉혔고, 나이 많은 경상우병사 조대곤을 해임토록 건의하였다. 당시 남방에서 행해지던 제승방략이 많은 적군이 침범해 오는 데 대비한 군사력 배치로서는 적절치 못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개국 초기의 진관체제로 환원하도록 요청하였다(『징비록』)

Ⅲ. 이영남의 청병과 연합함대의 결성

1592년 4월 13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왜군이 부산포 앞바다에 나타났다. 육군의 정규출정 병력만 15만 8천 8백여 명이었고, 그 외에 수군이 9,000명 그리고 선박관리와 후방경비 등 전투부대 이외에도 많은 부대가 동원되었다. 그 가운데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이끄는 제1번대 18,700명의 병력이 병선 700여척에 나누어 타고 4월 14일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그날로 부산포에 상륙하였다. 왜군은 육지에 상륙하여 수군첨절제사 정발이 지키고 있던 부산진성을 포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부산진성을 점령한 고니시가 이끄는 왜군은 계속해서 서생포와 다대포를 공격하였다. 한편 부산의 해안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은 부산진성이 이미 함락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조정에 그 사실에 대해 장계를 올리고 도망하였다. 반면 왜군은 계속해서 동래성을 공격하였으며 부사 송상현이 동래성을 지켰지만 끝내 함락되고 말았다. 왜군이 계속해서 경상도 해안을 장악하자 경상우수사 원균은 적세의 강함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영남의 청병 성사로 인한 연합함대 결성은 초기 해전에서 왜군의 기선을 제압하고 향후 제해권을 장악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청병 성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왜군 침략 당시 긴급했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균은 왜군이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함락한 날인 4월 14일에 급히 계본을 작성하여 4월 15일에 인접해역인 이순신의 전라우수영에 전달하였다. 당시 원균은 두 장의 공문을 급히 작성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가덕진 첨절제사 전용린(田應麟)과 천성보 만호 황정(黃玿) 등의 보고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응봉(鷹峰)의 봉수감고 이등(李等)과 연대감고 서건(徐巾) 등이 와서 고하기를 오늘 4월 13일 신시(申時)에 왜선이 몇 십척인지 대략 보이는 것만도 90여 척이 본토을 나와서 좌도의 추이도(柁伊島)를 지나 부산포(釜山浦)로 항해하는 바, 까마득하여 그 척수를 상세히 헤아려 볼 수는 없으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므로 첨사로서는 방략에 의거하여 부산과 다대포의 우요격장으로 하여금 군사와 전선을 정비하여 바다로 나가 사변에 대비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필시 세견선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지 90여척이나 많은 수가 오는 데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것이 심상치 않은 것 같으므로 방비와 감시하는 일들을 힘써 단속하고 경계하여 밤낮으로 사변에 대비하라고 소속 각 관포(官浦)에 급히 지시하였으며 신도 군사와 전선을 정비하여 강 어구에서 사변에 대비하고 있는바 그날로 장계를 올렸습니다.³⁾

원균은 처음에는 왜군의 선박이 세견선일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선박의 수가 너무 많은

3) 『壬辰狀草』〈因倭警待狀 1〉

점을 의심하였다. 그러던 중 “가덕첨사가 긴급히 보고하기를 왜선 150여 척이 해운대와 부산 포로 향하고 있다 하였는데 필시 세견선은 아닐 것이므로 극히 염려스럽다”는 경상우수사 박홍의 공문을 받고 그 즉시 다른 공문을 작성하면서 사안이 너무 급박하여 일일이 자세한 정황을 다 적을 수 없으니, 전라좌수영도 수군진영에 사변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⁴⁾ 그러면서 원균 자신도 군사와 전선을 정비하여 강 어구에서 사변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 이영남도 원균의 지시를 받고 왜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4월 20일에 겸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에 적의 세력이 크게 성하여 부산·동래·양산이 벌써 함락되고 부대를 나누어 육지로 향하고 있으니 원균에게 적선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전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가라고 하였다. 한편 경상도의 여러 진에는 전선이 없으니 변고 생기면 이순신에게 즉시 출동하여 도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27일 좌부승지로부터 도착한 서장에는 이순신이 원균과 합세하여 적선을 쳐부순다면 적을 평정시킬 것조차 없으니 각 포구의 병선들을 거느리고 급히 출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⁵⁾ 이 사실을 원균에게도 통고하였다.

이영남이 속한 경상우수영의 수군은 이렇게 매우 긴급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왜군과 최초의 해전(海戰)을 치르게 되었다. 당시 상황은 원균이 4월 29일 이순신에게 회답한 공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적선 500여 척이 부산·김해·양산·명지도 등지에 둔박(屯泊)하고, 제멋대로 상륙하여 연해변(沿海邊)의 각 관포와 병영 및 수영을 거의 다 점령하였으며, 봉화도 끊어졌으니 매우 분통합니다. 본도의 수군을 뽑아내어 적선을 추격하여 10척을 분멸하였으나, 날마다 병사를 끌어들이는 적세는 더욱 성해져서 적은 많은데다 우리는 적기 때문에 상적할 수 없어서 본영도 이미 점령되었습니다. (중략)귀도의 군사와 전선을 남김없이 뽑아내어 당포(唐浦) 앞 바다로 급히 나와야 하겠습니다.⁶⁾

위의 사료를 보면 이영남이 속한 경상우수영 수군들은 이미 왜군과 전투를 하여 적선 10여 척을 불살라 침몰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영남은 울포권관으로서 원균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참여하였다고 보인다.⁷⁾ 그러나 이영남이 속한 경상우수영은 왜군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함락되었다. 매우 위급한 상황에 빠지자 이영남(李英男)의 수장(首將)인 원균은 전라좌수영에 긴급히 전 병력을 동원한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상우수영의 함락과 전라좌수영에 구원요청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큰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것은 경상우수영이 함락되자 원균이 보인 행동과 그것을 극구 저지하여 파국을 막은 이영남

4) 『壬辰狀草』〈因倭警待狀 1〉

5) 『壬辰狀草』〈赴援慶尙道狀 1〉

6) 『壬辰狀草』〈赴援慶尙道狀 2〉

7) 이순신에게 청병하러 갔을 당시 이영남의 관직이 『선조실록』 권25, 5월 1일 경신 조에는 울포만호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순신의 난중일기 1593년 2월 15일자 기록에는 소비포권관으로 나오고 있다. 울포만호는 종4품직인데 반해 소비포권관은 종9품직의 말직이었다. 이영남이 어떠한 큰 잘못이 없는 한 1년도 안되어 종4품에서 종9품으로 급격히 강직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아마도 울포권관을 울포만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 노력이다.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懲毖錄)』에는 원균이 이끄는 경상우수영 병력은 개전초기에 이미 와해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균은 왜군이 육지에 상륙하자 적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모든 戰船과 무기, 식량 등을 모두 바다에 버린 다음, 배 4척에裨將인 이영남과 이운룡 등만 데리고 곤양 앞바다에 이르러 육지로 달아나려고 하였다고 한다. 이때 그가 거느린 경상우수영 소속의 전함은 약 100여척이었고 소속 군사는 1만 명이였다.⁸⁾ 비교적 많은 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순신이 원균을 돕기 위하여 경상우수영으로 출동하였을 때 그가 거느린 수군의 규모가 판옥선 40척이었던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군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경상우수영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원균이 이영남 등 비장을 데리고 달아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영남은 원균의 행동을 강하게 제지하였다.

이영남이 간하기를 “공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수군절도사가 되었는데, 지금 군사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게 되면 후일 조정에서 죄를 물을 때 무슨 말로 해명하겠습니까? 전라도에 구원병을 청하여 적군과 한번 싸워본 다음 이기지 못하거든 그 후에 도망치더라도 늦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자, 元均이 옳다고 여겨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 구원을 청하도록 했다.(『懲毖錄』)

위의 기록에 따르면 이영남이 원균이 도망치는 것을 막고 있었다. 난이 끝나고 나서 조정에서 죄를 물을 때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 뒤 싸우다가 도망쳐도 늦지 않는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절망한 원균에게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원균 휘하에는 4척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병력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망감은 더 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투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이영남은 전라좌수영에 원병을 청하여 함께 전투를 치루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균이 그의 방책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과연 원균이 급박한 상황에서 구원병을 청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병요청이 자신의 생각에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원균과 이순신간의 해묵은 갈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미묘한 상황에서 청병을 성공시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 이영남이었다.

이영남은 원균의 도주로 인한 파국을 막으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순신에게 청병을 요청하였다. 그 청병의 책임은 역시 자신이 담당하였다. 그는 절망에 가까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청병을 자청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영남의 이러한 제안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은 그가 이전부터 이순신을 잘 알고 있었던 데

8) 『懲毖錄』(이재호 옮김, 역사의 아침, 2007)p.168.

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영남과 이순신이 긴밀한 관계였음은 난중일기 곳곳에 이영남이 찾아왔다는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⁹⁾

이영남은 스스로 청병을 제안한 책무 때문에 직접 원군의 서찰을 가지고 이순신을 찾아가 구원병을 요구하였다. 한편 청병과 관련하여 『선조실록』과 『택당집』에 실린 식성군 이운룡(李雲龍)의 묘비명에는 원군이 달아나려고 하는 것을 그가 설득해서 막은 것으로 나온다.¹⁰⁾ 이운룡이 흠어진 병력을 끌어 모으고 호남의 수군에게도 구원을 요청하자고 제안하자 원군은 “호남의 군대를 당신이 청해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운룡은 “명령을 내리면 어길 수 없으나 울포만호 이영남이 평소부터 전라좌수영 군대를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아마 징비록과 식성군묘비명의 차이는 원군의 도망을 막는데 누가 직접 말하였는가이다. 여기서 원군을 설득한 것은 이영남이나 이운룡 누구 하나라기 보다는 원군의 비장으로서 둘 다 간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에게 청병의 임무를 띠고 파견된 것은 이영남이었음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¹¹⁾

징비록에는 이영남이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순신을 대여섯 차례나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청병 요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순신은 이영남의 청병 요구에 “우리가 각각 맡은 경계가 있는데 조정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어찌 마음대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하고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해안 방어체제가 진관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각각 다른 방어진역으로 군사를 출동키 위해서는 조정의 허락을 받은 뒤에야 출동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영남의 청병 요구에 이순신이 즉각 응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막하 장수들의 반대여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병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를 두고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장수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논쟁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연려실기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순신 등이 맥없이 서로 돌아보니 광양 혹은 흥양(興陽) 현감 어영담(魚泳潭)이 그들이 구실만 대고 결정짓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연히 큰 소리로, “영남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며 왜는 나라도적이 아닌가. 영남 여러 진이 모두 함락되고 단지 배 몇 척만이 우리 경계에 머물고 있으며 강한 도적이 뒤에 있으니, 우리가 한 도의 완전한 군사를 가지고서 구원 요청을 무시하고 영남 해군의 패하는 것을 앉아서 볼 수 있겠는가.” 하니 모든 장수들이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조야첨재》에는 군이 울포만호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 구원을 청하니 모든 장수들이, “우리가 우리 관할 지키는 것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타도에 가느냐.”고들 말하는데 오직 녹도 만호 정운과 군관 송희립(宋希立)이 의기를 내어 눈물을 흘리면서 이순신에게 진격하기를 권하고 적을 토벌하는 데는 내 도(道) 남의 도가 없고 먼저 적의 선봉만 꺾어 놓으면 본도도 역시 보전할 수 있다 하였다. 이순신은 깊이 생각하고 답이 없다가 이튿날 새벽에 장사들을 모으고 영담을 불러,

9) 난중일기에는 이영남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62회가 나온다.

10) 『宣祖實錄』26, 선조 25년 5월 1일 庚申 條와 『澤堂集』 息城君李公墓碑銘并序.

11) 윤희의 문집인 『백호전서』 권23, 事實, 諸將傳에도 원군이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 이영남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광양의 말이 옳지마는 단지 물길이 깊고 먼 데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한 즉, 영담의 말이, “이것은 소장이 담당하여 사포를 위해서 선봉이 되겠소.” 하였다. 이순신이 기뻐서 광양의 계책대로 하자하고 즉시 영담으로 수로 향도(嚮導)를 시키고, 귀선장(龜船將) 신여량(申汝良)으로 척후(斥候)를 삼고, 순천 부사 권준(權俊)과 가리포 첨사 구사직(具思稷)으로 중위장·좌위장·우위장을 삼아서, 5월 4일에 이역기와 더불어 전선 80여 척을 영솔하고 영남 바다로 내려갔다.(『燃藜室記述』)

이 기록을 보면 경상우수영의 청병 요구를 두고 많은 장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광양 현감이었던 어영담과 녹도만호 정운, 군관 송희립 등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징비록에는 이순신이 지키는 경계가 다름을 들어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나오지만 위의 기록을 보면 이순신은 신중하지만 내심 출동을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영남의 청병 요구를 받은 뒤 여러 장수들의 반대여론이 많은 가운데 어영담이 적극적인 구원을 주장하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하자 이순신이 기뻐하였다는 데서 헤아려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중에 4월 27일 선전관 조명(趙銘)이 유서(諭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원군과 합세하여 적선을 격파한다면 적은 과멸에 이를 것이다. 그대는 각 포구의 병선들을 독촉하여 급히 출전하여 기회를 잃지 말도록 하라. 그러나 천리 밖이라 혹시 무슨 뜻밖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였다.¹²⁾ 이에 이순신 지휘하의 전함대는 4월 29일 전라좌수영 앞 바다에 총집결하여 출동을 준비하였다. 4월 30일 출전에 앞서 전라우수사 이역기 함대가 같은 날 출발하겠다고 전라좌수영으로 공문을 보내오자 이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출동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역기 함대가 5월 3일까지도 도착하지 않자 나중에 뒤따르라고 한 뒤 5월 4일 새벽 2시경에 단독으로 출정하였다.¹³⁾

이 때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소속 함대의 전력은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으로 모두 합쳐 85척이었다.¹⁴⁾ 이 가운데 주력 전투함은 판옥선 24척이었다. 나머지는 승선인원이 5~6명에 불과한 협선과 함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포작선 즉, 어선이었다.

이 당시 이영남은 소비포 권관으로서 협선을 타고 이순신과 합세하여 옥포해전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 이영남과 함께 참여한 경상우도 소속의 장수들은 남해현령 기효근, 미조항첨사 김승룡, 평산포 권관 김축, 사랑 만호 이여념, 영등포 만호 우치적, 지세포 만호 한백록, 옥포 만호 이운룡 등이었다.¹⁵⁾ 이들이 타고 온 전선은 판옥선 3척과 이영남과 이여념이 각각 타고 온 협선 2척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연합함대는 경상우도 해역으로 출전하여 옥포해전을 치르게 되었다.

12) 赴援慶尙道狀(『李忠武公全書』 2)

13) 玉浦破倭兵狀(『李忠武公全書』 2)

14) 玉浦破倭兵狀(『李忠武公全書』 2)

15) 玉浦破倭兵狀(『李忠武公全書』 2)

IV. 초기 해전의 승리와 이영남 장군

1592년 5월 4일 새벽에 출발한 이순신의 연합함대는 날이 저물 무렵 경상우도의 所非浦(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앞바다에 도착하여 밤을 지냈다. 이때 소비포의 방어책임은 이영남이 맡고 있었다. 5월 6일 이순신과 만나기로 약속한 당포 앞바다로 경상우수영 장수들이 모여들었다. 이 때 이영남도 협선을 타고 이르렀다.

5월 7일 새벽 연합함대는 모두 당포를 출발하여 왜선이 정박해 있던 천성과 가덕 방면을 향하여 갔다. 이 때 척후장 여도권관 김인영(金仁英) 등이 신기전을 쏘아 올려 적의 출현을 알리자 이순신의 지휘아래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때 왜선은 약 50여척으로 포구로 들어가 노략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순신의 연합함대를 발견하고 황급히 도망하다가 6척의 왜선이 먼저 이순신 함대와 맞닥트리면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의 상황을 이순신이 올린 장계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소속 제장들은 한마음으로 분발하여 모두 사력을 다하고 배 안의 무인이 아닌 관리들도 또한 뜻을 다하여 죽기를 기약하고 싸웠다. 적을 동서로 포위하여 공격하니 포와 화살의 소리는 풍뢰와도 같았고, 적도 발포하고 배 안의 물건들을 물에 던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우리의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는 자와 물에 빠진 자는 부지기수여서 일시에 궤멸하였다.(玉浦破倭兵狀 『李忠武公全書』)

위의 기록에 알 수 있듯이 이순신 지휘하의 연합함대는 대형총통과 궁시를 이용한 공격으로 적을 격파하고 있었다. 이 때 경상우수영 소속이었던 이영남도 힘을 다해 싸워 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이순신이 올린 옥포해전에 관한 장계에 자신의 직속 부하 장수들의 공을 언급하면서 “경상도 여러 장수들이 왜적의 배 5척과 우리나라 포로 3명을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라고 설명한데서 알 수 있다.¹⁶⁾ 자기 휘하 장수들의 공을 자세히 언급한 것에 반해 경상우수영 소속 장수들의 공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⁷⁾ 여하튼 원군 휘하의 주요 비장인 이영남(李英男)과 이운룡(李雲龍)을 포함하여 몇 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선 5척을 격파하는 큰 공을 세운이로 이영남을 들어도 잘 못이 없을 것이다.

옥포해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이영남은 계속해서 이순신 함대를 따라 거제도의 영등포로 나아갔다. 이 때 근처에 적선 5척이 지나고 있다는 척후장의 보고를 받은 연합함대는 곧바로 뒤쫓아 함포 앞바다에 이르러 육지로 도망간 왜군의 빈 배를 불태워버렸다.¹⁸⁾ 계속해서 5월 8일에는 적진포에 왜선이 정박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포구로 나아가 적의 대선과

16) 玉浦破倭兵狀(『李忠武公全書』 2)

17) 이순신은 자기 휘하 장수들의 전공을 보성군수 김득광은 왜대선 1척, 홍양현감 배홍립은 왜대선 2척과 소대선 2척, 방담첨사 왜대선 1척... 등 일일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우수영 소속 장수들의 전공은 “경상우도 여러 장수들이 왜선 5척을 당파하고...”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

18) 玉浦破倭兵狀(『李忠武公全書』 2)

중선 등 13척을 공격하여 불태워 버렸다. 왜군은 급작스러운 조선 수군의 출현에 놀라 육지로 올라가 조총 등으로 항전하였지만 사정거리 밖에 있는 조선 수군을 격파할 수 없었다.¹⁹⁾ 이 때 이영남의 구체적인 공적과 역할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²⁰⁾ 그러나 연합함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어렵게 성사시킨 연합작전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따라서 이영남이 여기서 큰 공을 세웠을 것임은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옥포해전을 비롯해서 합포와 적진포 싸움에서의 승리는 비록 조선 수군과 왜 수군 사이의 전면적인 싸움은 아니었지만, 육지에서 계속되는 참패 속에서 해상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초기 해전이였다. 이로써 왜군은 육지에서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경상도 옥포 등지에서 1차 해전을 끝낸 이순신함대는 전라좌수영으로 돌아와 수군을 계속 모으는 한편, 부산의 왜군이 계속 거제 서쪽까지 드나들면서 노략질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2차 출동을 준비하였다.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억기에게 공문을 보내 연합작전을 제의하였다. 6월 3일까지 전라좌수영 앞바다에서 만나 함께 출동하기로 하였으나 5월 27일에 전해진 원균의 공문으로 서둘러 출동하게 되었다.²¹⁾ 이 때 적선 10여척이 사천포와 곤양 등지까지 육박하였기 때문에 원균은 노량(露梁)으로 물러나 있었다. 이에 이순신이 이끄는 연합함대는 이억기가 합류할 날짜까지 기다리다가 적의 형세를 키워줄 것이 염려된다고 하면서 23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먼저 출동하게 되었다. 이순신함대가 노량에 이르러 보니 원균은 단지 3척의 전선만을 거느리고 하동 포구로 옮겨와 있었다. 아마 원균이 거느린 3척의 전선 가운데 하나에 이영남도 승선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영남은 원균의 몇 안남은 비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순신함대는 이영남의 경상우수군과 함께 사천 선창에 이르러 산봉우리에서 진을 치고 있던 왜선 12척을 발견하였다. 왜군은 조선 수군이 나타나자 지대가 높은 산봉우리로 올라가 진을 치고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곧 바로 돌진해 들어가 화살을 쏘아 불태우고 싶었으나 거리가 너무 멀었고, 썰물이라 관옥선이 진입하지 못하자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기 위하여 물러나왔다. 그러자 일부 왜군이 배를 타고 나오고 마침 밀물로 바뀌자 관옥선과 거북선을 돌진시켜 천자와 지자총통과 화전, 피령전 등을 발사하면서 총 공격을 가하였다. 당시 상황을 이순신의 장계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적선이 있는 곳으로 돌진해 들어가게 하고, 천자·지자·현자·황자 등 여러 총통을 쏘게 하였다. 그러자 산위, 언덕 아래, 배를 지키는 세 곳의 왜군들도 철환을 비오듯이 쏘아댔다. 한데 그 속에는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그리하여 노를 빨리 저

19) 조총의 사정거리는 200m였는데 비해 조선 수군의 대형화포는 200~1600m에 달하였다.

20) 이순신이 올린 장계인 옥포과왜병장(玉浦破倭兵狀)에는 방담첨사 이순신과 사도첨사 김완 등 자기 휘하 군관들의 공적만을 적고 있어 이영남의 활약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1) 원균의 공문 내용은 "적선 10여 척이 벌써 사천(泗川)·곤양(昆陽) 등지에 육박하였기로 수사는 배들을 남해 땅 노량(露梁)으로 이동하였다.(『壬辰狀草』 唐浦破倭兵狀, 조성도 역, 1997)"라는 것이다.

어 앞으로 나아가 바로 그 배를 두들겼다. 여러 장수들이 일시에 철환·장전·편전·피령전·화전을 천자·지자총통에 장전하여 비바람같이 쏘면서 저마다 힘을 다하는데 왜군들은 중상을 입고 엎어지는 자와 부축하며 끌고 달아나는 자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으며, 높은 언덕으로 물러가 진을 치고서 감히 나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唐浦破倭兵狀『李忠武公全書』)

이 설명에 따르면 이순신의 전략은 화력의 우세를 철저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맨 먼저 거북선을 돌진시켜 적진을 흠뜨려 놓은 뒤에 탑재하고 있던 천·지·현·황 등 대형 총통을 집중적으로 발사하여 적진을 파괴시킨 뒤, 판옥선 등이 나아가 총공격을 가하였다.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을 활용한 전법을 선보였으며, 왜선 13척과 수 백명의 왜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군관 나대용(羅大用)이 총에 맞았고, 이순신 자신도 왼쪽 어깨에 관통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사천싸움을 끝낸 이영남은 이순신함대를 따라 사천의 모자랑포에 정박하였다. 이 지역은 노량해협을 사이에 두고 경상우도의 끝부분에 해당하며, 전라도좌수영을 통해 전라도 해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이영남과 이순신 함대는 당포 선창에 왜선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곧 바로 함대를 출동시켜 6월 2일 당포에 이르렀다. 당포에 주둔한 약 300여명의 왜군들은 절반이 성에 들어가 방화와 노략질을 자행하였고, 일부는 성 밖의 산에도 진을 치고 철환으로 조선군을 공격하였다. 선창에는 왜대선 9척, 중·소선 12척이 정박해 있었다.²²⁾ 정박한 선박 가운데 높이가 3, 4장이나 되며 ‘황(黃)’자가 쓰인 붉은 휘장이 사면에 둘러쳐진 선상 층루의 높이가 6~7미터 정도 되는 대장선이 있었다. 이전함에서 적장이 투구를 쓰고 금의를 입은 채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순신 함대는 사천싸움에서처럼 거북선을 먼저 적장이 타고 있는 층루선에 돌진시킨 뒤 철환과 천자·지자총통과 대장군전을 쏘아 적선을 부수었다. 후속 전함들도 탄환과 화살을 발사하며 격전을 벌였고, 중위장 권준(權俊)은 왜장을 쏘아 맞추었다. 왜 수군은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하였으며, 왜선 12척은 모두 격파되었다.

이 때 이영남은 왜장의 배에서 울산출신 사노 억대(億代)와 거제도 출신의 계집아이 모리(毛里) 등을 되찾아 왔다고 한다. 이영남이 데려온 억대를 이순신이 직접 문초하기도 하였다. 이영남이 왜장의 배를 수색하여 조선인 포로를 되찾아 왔고, 그 포로를 이순신이 직접 신문한 것은 이영남이 이순신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사실은 그가 당포해전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하였음도 함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틀 후인 6월 4일 당포 앞바다에서 패한 왜 수군이 거제로 향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영남과 이순신 함대는 거제로 출격하였다. 이 때 전라우수사 이억기가 전선 25척을 거느리고 연합함대에 합류하였다. 연합함대는 당포에서 쫓겨 간 왜 수군이 당항포에 정박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곧 바로 당항포 앞바다로 나아갔다. 이순신은 적선을 유인해 내기 위하여 몇 척의 전선을 포구로 먼저 들어가게 하고 4척은 바다 어귀에 북병하게 하였다. 신기전을

22) 唐浦破倭兵狀, 『壬辰狀草』

쏘아 곧 바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받아 한꺼번에 전함대가 돌입하였다. 이 때 왜 수군은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 등 26척이 정박해 있었다. 조선 수군은 적선을 포위한 뒤 먼저 거북선을 돌입시켜 전선을 흘트려 놓은 뒤 천자·지자총통을 쏘아 적의 대장선을 격파하였다. 나머지 전함들도 왜선과 격전을 치르다가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따라 거깃으로 포위를 풀고 후퇴하는 척하였다. 이에 왜선은 층각선을 필두로 넓은 바다로 나오게 되었다. 조선 수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수를 돌려 거북선이 먼저 대장선인 층각선에 돌진하여 총통을 쏘아 깨뜨린 뒤 여러 전선들도 화전을 쏘아 왜의 층각선을 불태웠다. 나머지 대선 4척이 도주하려 하자 왜선을 추격하여 포위하였다. 궁지에 몰린 왜군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상륙하자 조선 수군은 1척 만 남겨 둔 채 불태워 버렸다.

연합함대는 6월 7일 새벽에 다시 출항하여 정오경에 영등포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이 때 울포에서 부산 쪽으로 도망하는 왜의 대선 5척과 중선 2척을 발견한 뒤 추격을 시작하였다. 경상 우후 이몽구와 사도 첨사 김완, 가리포첨사 구사직과 광양 현감 어영담이 적의 대선을 붙잡아 적 목을 베고 배는 불살라버렸다. 이 때 소비포권관 이영남은 소선을 타고 적진을 뚫고 쫓아 들어가 활살을 쏘아 적을 죽인 뒤 나머지 배 1척을 불사르는 전공을 세웠다. 이영남이 탔던 소선은 5~6명 내외가 탔던 협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영남은 소비포권관으로서 경상우수영 해역의 물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포싸움에서 이영남은 이순신 휘하의 어영담, 구사직, 김완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연합함대에서 핵심 비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이순신과 이영남이 서로 믿음과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 수군은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해상 작전에서 왜선 70여 척을 격파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이 출동에서 선박의 피해는 없었지만 전사자 13명과 부상자 34명이라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는 왜군인 입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李英男은 임진왜란 초기 자신의 지휘관이 모든 전함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하였을 때 끝까지 설득하여 파국을 막았다. 최후의 방책으로 이순신에게 청병을 통한 대책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여러 차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관철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 이순신의 연합함대에서 이영남을 누구 보다 앞서 나가 전투에 참여하였다고 보여 진다.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 자세한 사항을 열거할 수 없지만 울포해전에서 소선을 타고 적선에 돌진하던 그의 자세를 볼 때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것이다.

왜 수군은 해전에서 여러 차례 조선 수군에게 패한 뒤 수군력을 총동원하여 조선 수군을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육전에 참가 중이던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등에게 협동하여 조선 수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와키사카는 협동하여 조선 수군을 공격하라는 도요토미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휘하 수군을 이끌고 7월 7일에 거제도로 진출하였다. 한편 이순신 함대는 원군의 전선 7척을 합하여 50여척의 전선을 이끌고 당항포에 이르렀다. 이 때 거제도의 목동인 김천손이

‘적의 대·중·소선 70여 척이 오늘 하오 2시쯤, 영등포 앞 바다로부터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이르러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알려왔다. 이에 이순신은 7월 8일 견내량을 향하여 출발하였고, 근처 해역에 이르렀을 때 왜 수군의 척후선이 이순신 함대를 발견하고 도주하였다. 견내량에 정박하고 있던 왜 수군의 규모는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등 73척이었다. 이순신 함대는 익히 앞선 싸움과 마찬가지로 적선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도주로를 차단한 뒤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판옥선 5, 6척으로 하여금 왜군을 총공격하듯이 움직이도록 한 뒤 한산도 앞바다로 퇴각하면서 끌어내었다. 이순신 함대는 왜의 적선이 일렬로 늘어서도록 유도한 뒤 좌우에서 학의 날개 형태로 포위 공격을 감행하였다. 먼저 3척의 거북선으로 적진을 향해 돌입하게 한 뒤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지자·현자·승자 등의 각종 총통과 화전을 발사하게 하여 왜 수군을 궤멸시켰다. 한산대첩 결과 왜의 대선 35척, 중선 17척, 소선 7척을 격파하였고, 대선 1척, 중선 7척, 소선 8척 등 14척이 겨우 탈출하였을 뿐이다. 이 전투에서 소비포권관 이영남도 원군 휘하의 전선 7척 가운데 하나에 탑승하여 전함을 지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의 학익진 전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산대첩을 거둔 뒤 조선수군은 견내량에 정박하고 있었다. 이 때 안골포에 적선 40여 척이 머물고 있다는 탐망선의 보고를 받아 즉시 공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역풍으로 말미암아 다음날로 연기하였다. 7월 10일 새벽에 안골포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왜의 대선 21척, 중선 15척, 소선 6척 등 모두 42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이곳의 왜 수군은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와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가 거느리는 정예 수군이였다. 안골포는 수심이 얕아서 판옥선과 같은 커다란 배가 쉽게 들어가 기동할 수가 없었다. 이에 유인작전을 전개하여 넓은 바다로 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왜 수군이 전면적인 응전을 하지 않자, 이순신은 몇 척의 함선으로 하여금 포구를 출입하면서 적선을 향해 각종 총통과 불화살과 편전으로 공격케 하였다. 이에 적선은 절반이상이 파괴되었고 잔존 왜군은 육지로 올라갔고, 나머지 함대는 밤을 이용해 안골포를 탈출하여 부산으로 도주하였다.

유성룡은 한산대첩의 의의를 “이순신이 한산대첩을 거둬 일본의 수륙병진 전략을 분쇄하였고, 더 나아가 전라도와 충청도가 보전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중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한산대첩은 임진왜란의 전황을 바꿔 놓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산대첩의 결과 가덕도 이서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뒤 왜 수군의 근거지인 부산포를 직접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 때 조선 수군의 전선 척수가 한산대첩 때의 52척보다 증가한 74척에 이르렀다. 전라 좌우도의 전선 74척과 협선 92척은 8월 24일 좌수영을 떠나 거제를 거쳐 가덕도 근처에서 밤을 지냈다. 이순신은 적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공격에 신중을 기하였다. 공격 전날은 이억기와 원균과 함께 밤을 새워 작전회의를 가졌다. 원균이 작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영남이 부산포해전을 위한 연합함대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은 9월 1일 척후선을 보내 부산포를 관찰하게 하였는데, 왜선 약 5백 척이 해안에 줄지어 정박하고 있고 대선 4척이 초랑 쪽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날 부산포 해전은 저물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연합함대는 초반에 선봉으로 나선 왜의 대선 4척을

격파하고 장사진(長蛇陣)으로 왜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이 때 왜군은 배를 버리고 모두 산 위로 올라가 연합함대를 향해 철환과 화살을 쏘면서 반격하였다. 이에 이영남이 속한 연합함대는 천자·지자총통과 불화살을 쏘며 공격을 계속하여 많은 수의 적선을 파괴하였다. 연합함대는 이곳에서 큰 전과를 올렸지만 한편으로 우부장인 정운이 전사하는 등 전사 6명과 부상 25명이라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 한편 파손된 전선도 많고 군량도 다 떨어져 더 이상 작전을 전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연합함대는 9월 2일에 해산한 뒤 각자의 본영으로 돌아갔다.

이영남은 임진년에 연합함대를 꾸리는데 그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이순신의 연합함대에 참여하여 여러 차례 해전을 치루면서 그의 전략과 전술을 잘 숙지하였으며, 주장과 부장으로서 서로를 긴밀히 잘 알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1593년 계사년부터 이영남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영남은 수시로 이순신을 찾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여기에는 원균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수군의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담겨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후에 이영남은 이순신의 조방장으로 활약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누구보다 이순신의 전략 전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방장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V. 加里浦僉使 李英男 과 露梁海戰 의 승리

이영남은 1595년 선조 28년 5월에 태안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²³⁾ 그러나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체직하게 되었다.²⁴⁾ 이 때 탄핵의 이유가 주장(主將)을 헐뜯고 자기가 세운 공을 자랑하며, 한 가지 이력도 없는데 갑자기 군수의 직책을 제수하여 벼슬을 지나치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영남이 주장을 헐뜯었다고 했는데, 이 때 주장이 누구였는지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원균이었다고 생각된다. 난중일기에 이영남이 수시로 이순신을 찾아와 원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으로 보아 원균이 이러한 상황을 눈치 채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이 내용이 원균에 의해 조정에게까지 전해져 사헌부의 탄핵까지 받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영남이 한 가지 이력도 없이 갑자기 군수의 직책을 제수 받은 것은 벼슬이 지나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이영남의 군수임명이 특별한 공훈도 없는 너무 급격한 승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난중일기 1595년 2월 21일자에 따르면 이영남은 종 9품직인 소비포 권관에 있었다. 그러다가 종 4품직인 태안군수에 임명된 것이다. 매우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헌부에서 벼슬을 지나치게 주었다고 탄핵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영남은 태안군수에 오래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조가 파직은 안되고 체직은 아뢰는 대로 하

23) 『선조실록』 63, 선조 28년 5월 23일 을미.

24) 사부헌부에서 이영남이 주장을 헐뜯고 자기가 세운 공을 자랑하고, 한 가지 이력도 없는데 갑자기 군수의 직책을 제수한 것은 지난친 것이니 체직하라고 주장하였다(『宣祖實錄』 63권, 선조 28년 5월 23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직책으로 옮겨졌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중 5품의 강계부판관으로 체직된 것으로 보인다. 선조실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강계부지(江界府志) 선생안에 강계부판관을 역임한 것으로 나온다.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 5품직을 유지한 것은 그가 임금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영남은 강계부판관을 끝낸 뒤 얼마간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97년 3월에 가서야 장흥부사를 역임하였다. 이영남은 난중일기 1595년 2월 21일자 이후 기록에 나타나지 않다가 1596년 5월 7일에 이순신을 찾아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 그가 사헌부 탄핵이후 강계부판관으로 전출되어 갔다가 12월까지 임무를 마치고 그 이듬해인 1596년 이순신을 찾아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아직 다른 직책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난중일기 1596년 5월 7일과 8일, 11일, 12일자에 이영남의 이름이 나오는데 직책을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순신이 한 문장에서 거제현령, 영등포만호라고 직책을 적으면서 이영남만 직책 없이 이름만 쓰고 있다.

그 뒤 난중일기에는 그의 이름이 또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순신도 1597년 2월 25일자로 신임 통제사 원균(元均)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다음날 길을 떠나 서울로 갔다. 그리고 3월 4일 투옥되었다. 그리고 4월 1일 다시 사면되어 백의종군으로 도원수 권율 휘하에 배속되어 본진이 있는 순천으로 내려갔다. 1597년 초부터 3월까지의 난중일기가 빠져있어 그 동안의 상황을 잘 알 수 없다. 이영남도 1597년 10월까지의 아직 가리포첨사직에 취임하고 있지 않았다. 난중일기 1597년 10월 12일자에 나오는 가리포첨사는 이응표였다.

이영남은 가리포 첨사에 임명되기 전 장흥부사로 있었다.²⁵⁾ 장흥부사는 전라도 장흥진관을 관할하는 첨사급 지휘관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흥부사에 임명된 후 또 다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부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²⁶⁾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된 지 약 3개월 뒤의 일이었다. 이것은 원균이 통제사에 임명된 뒤 이순신과 친교가 있던 인물들을 배제한 조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⁷⁾

한편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된 원균은 수륙병진책을 주장하며 수군의 출동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도원수와 도체찰사는 거듭 왜군의 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거부하다가, 6월 18일에야 부산으로 향하였다. 6월 19일에는 안골포와 가덕에서 소규모 해전을 치러 여러 척의 군선을 포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항하는 과정에서 적의 역습을 받아 평산 만호 김축(金軸)이 총상을 입고 보성군수 안홍국(安弘國)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7월 14일 원균은 함대 전체를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나아갔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가덕도로 회항하여 정박하다 왜군의 매복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다. 하는 수 없이 원균함대는 칠천량으로 이동하였으며, 왜군은 이를 간파하고 7월 16일 새벽에 원균함대를 공격하였다. 양측이 격전하였으나 상황이 불리해진 조선 수군은 두 갈래로 탈출하였다. 원균은 겨우 목숨을

25) 선조실록 1597년 3월 20일자에 그가 장흥부사로 나온다.

26) 『선조실록』 88, 선조 30년 5월 22일 壬子條.

27) 원균이 통제사로 부임한 후 경상우수사 배홍립은 곧 바로 배설로 교체되었고, 나주 목사로 임명된 권준도 부임하지 못하고 교체 되었는데, 이들은 이순신의 측근인물들이었다고 한다(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2004, 청아람미디어, p.194).

건져 고성의 추원포에 상륙하여 도망하다 왜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것이 칠천량 패전이였다.

원균의 거듭된 패망소식에 조정에서는 시급히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 뒤 사태의 수습을 독려하였다. 이때가 1597년 8월 3일의 일이었다. 이순신은 경상우수사 배설로부터 남은 군선을 인수하고 해남의 이진(梨津)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이 때 수습한 전선은 모두 13척 뿐이었다. 그는 패전을 경험한 군인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엄한 군율로서 이들을 다스렸고, 민심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순신은 8월 29일 벽파진으로 진을 옮긴 뒤 전선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시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러던 중 9월 7일 밤 10시경에 습격해 온 적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인 명랑에서 믿을 수 없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명랑해전에 이영남이 참전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기록은 없다. 이영남은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얼마 뒤 장흥부사에 물러났다. 징비록에는 원균이 한산도에 부임하고 나서 이순신이 시행하던 여러 규정들을 모두 변경하고, 모든 부하 장수들과 사졸 가운데서 이순신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버렸다고 한다. 특히 이영남은 원균 자신의 패전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더욱 미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원균이 자신의 진중에 이영남을 남겨 놓았을 것 같지 않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1597년 선조 30년 10월 2일자(충청병사 이시언의 장계에 상주의 왜적이 막사를 불사르고 낙동강 길로 나아가자 방어사 박명현, 평안병사 이경준, 조방장 이영남과 함께 쫓아갔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이영남이 조방장으로 육전에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균에 의해 수군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승방략체제에 따라 충청병사 이시언에 의해 육전에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연해안의 여러 읍진들은 제승방략에 의해 수사와 병사에 의해 그 지휘통솔권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진관체제하에서는 병사와 수사의 지휘권이 분리되어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진관체제가 무너지고 제승방략에 의한 방어체제로 전환되면서 연안의 읍진의 수장들이 육전에 동원되었다.

그 후 이영남은 1598년 3월을 전후한 시기에 가리포진의 첨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가리포첨사 임명은 이순신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영남은 가리포첨사 겸 조방장으로 부임하여 이순신과 함께 수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미 전라우수사 이억기를 비롯하여 자기 휘하의 신뢰하던 장수들을 원균의 칠천량 싸움에서 잃어버린 뒤라 자신의 전술을 잘 이해하고 전투를 함께 했던 이영남은 더 없이 필요하고 신뢰하는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영남이 맡고 있던 가리포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특히 이순신이 서해로 진출하려는 왜 수군을 격파했던 명랑해역의 진도와 함께 호남을 지키는 길목이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통일신라 때에는 장보고에 의해 청해진이 설치되는 등 일찍부터 군사진(鎭)이 설치되어 해상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리포진의 설치는 중종 17년 6월 왜구의 추자도를 침입으로 인한 해안방어의 시급성이 대두되자 임치도(臨淄島) 관하의 여러 포(浦)를 나누어 편성한 뒤, 당상관의 첨사(僉使)를 진장(鎭將)으로 하였으며, 전략상으로는 제주진관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였다.²⁸⁾ 이 때 가리포진

에 편성된 제포(諸浦)를 보면 사도진관 소속의 마도(馬島), 임치도(臨淄島) 진관(鎭管) 소속의 어란포(於蘭浦), 금갑도(金甲島)가 가리포진에 이치(利置)되었고, 신지도(新智島)가 신설되었다.²⁹⁾

가리포진은 왜구들의 조선해안을 노략질하는데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설치된 전략적인 군사진(鎭)으로 이해된다. 이항복의 왜구대책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평상시에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는 외적 중 그 태반이 이 섬사람이며, 그들이 들어오는 길은 오도(五島)에서 동남풍을 타고 삼도(三島)로 와서 밤을 지내고 선산도(仙山島)를 지나 바로 고금도(古今島)와 가리포(加利浦) 등의 방면으로 들어오며, 대마도(對馬島)에서 동북풍을 타고 연화도(蓮花島)와 욕지도(欲智島)의 사이에 이르러서 밤을 지내고 곧장 남해(南湖)의 미조(彌助)·방답(防踏) 등 지방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전라도로 입구(入寇)하는 데 익혀진 뱃길이다.”(『만기요람』)

이항복은 왜구가 전라도를 노략질하는데 위한 가장 익숙한 뱃길이 고금도와 가리포 방면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반대로 왜구 침략으로부터 전라도를 방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가리포였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왜의 수군이 남해안을 따라 서해로 진출하여 호남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전략적 요충지인 가리포진의 방어책임을 이영남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순신의 신뢰가 두터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수군장으로서의 능력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영남은 가리포첨사 겸 조방장으로서 이순신을 도와 전라도 해안을 방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이 모두 퇴각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과 함께 고금도에서 출진하였다. 조·명 연합함대는 왜군이 노랑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곳에 미리 진을 치고 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8월 18일 전라 좌수영 앞 바다를 지나 19일에는 500여척의 왜 전선과 마주쳐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조·명연합군은 화공으로 공격하며 적에게 타격을 입히자 적선은 퇴각하여 관음포로 들어갔다. 이 관음포에서 전 화력을 집중한 전면전이 전개되었으며, 통제사 이순신과 가리포첨사 이영남, 낙안군수 박덕룡, 홍양현감 고득장 등 10명이 적의 탄환에 맞아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영남에 앞서 임진왜란 당시 전라우수사였던 이억기장군도 47대 가리포첨사를 지냈다. 그 만큼 전라수역을 방어하는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중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8) 濟州牧使 南致勤 狀啓(中略) 前者加里浦僉使 以堂上官差送者 專爲濟州救援本意也(『明宗實錄』권16, 9년 6월 甲午條.)

29) 이태진, 「중앙 및 지방군제의 변화」(『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p.286.

VI. 맺음말

이영남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채 한 달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란을 끝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발생 초기에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되자 경상우수영의 수사였던 원균이 전선과 무기를 모두 바다에 가라앉힌 뒤 도망하려하자 이영남이 적극 만류하였다. 그런 뒤 전라좌수영의 이순신에게 구원병을 청하여, 적과 싸워본 뒤에 도망하여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원균을 설득한 이영남은 청병의 책임을 지고 이순신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쉽게 승낙을 얻을 수 없었다. 이순신 휘하의 부장들의 의견이 이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영남의 청병요청에 전라좌수영의 부장들 가운데 어영담 등의 적극적인 찬성에 힘입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비록 경상우수영의 수군이 몇 척 남지 않았지만 전라좌수영과의 연합함대 결성에 이영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전라좌수군의 경상도 해역의 작전에서 이 지역의 물길을 잘 알고 있던 이영남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이영남이 참전한 옥포해전을 비롯해서 합포와 적진포 싸움에서의 승리는 비록 조선 수군과 왜 수군 사이의 전면적인 싸움은 아니었지만, 육지에서 계속되는 참패 속에서 해상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초기의 해전이였다. 이로써 왜군은 육지에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영남은 이순신이 모함에 빠져 통제사 직에서 해임되어 투옥되었을 때 역시 원균에게 배척되었다. 그 후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에 복귀하자 이영남 또한 가리포첨사 겸 조방장으로 그를 도와 해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인 가리포진의 방어책임을 맡은 가리포첨사에 임명되어 그 만큼 전라도 방어 임무의 중책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며 또한 그의 수군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원균이 지휘한 칠천량 싸움에서 이역기 등 핵심 장수들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전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던 이영남은 이순신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이순신과 함께 조선 수군을 지휘하던 이영남은 노량해전에서 적의 탄환에 맞아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다.